

경쟁과 협력의 질서

“

권력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주체의 권력프로세스에 작용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한다. Concordance process는 개인, 기업, 조직, 정부와 같은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적용할 수가 있다.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경 환
(032)860-7735

국가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원천은 국가구성원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동적 프로세스인 Concordance Process에 의존한다. 예로서 오늘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정부, 기업, 투자자, 소비자, 노동자와 같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Concordance Process를 유발하는 동학적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국가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권력속성과 Concordance Process

권력의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의 다섯 속성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생존을 위

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권력의 다섯 속성은 각각 단독으로 작용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권력속성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한다. 예로서 권력의 창조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

로운 기술, 지식, 문화, 제도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여, 인간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권력의 창조속성과 보존속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할 경우, 이들은 새로운 뿐만 아니라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게 하여 사회적 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한다.

기업은 권력의 결합속성에 따라 자본, 기술 및 노동의 결합의 산출물이다. 기업활동에서의 자본가와 기술자 및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들은 권력의 보존속성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창출, 유지함으로써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연합(UN)은 권력의 결합속성에 따라 국가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국제연합에 속한 각 나라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개별 국가 이익을 충실히 지키고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의 지배 및 귀속관계에서 귀속권력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권력창출이나 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성장을 도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다섯 속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더라도 이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sma 등(1994)은 정체성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상태간에 불변적인 동일성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에 관계된다고 한다. Erickson(1968)에 의하면 정체성을 연속성, 단일성, 독창성 또는 불변성을 의미한다.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은 특정의 순간에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자기 지각적 일관성을 갖는다

고 한다. 따라서 정체성이 강한 개인이나 사물은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할지라도 그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원한다. 예로서 햇빛은 정체성이 강한 여러 과장의 빛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여러 과장의 빛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할은 대등하다. 또한 이러한 과장들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정의 과장의 빛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의 다섯 속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권력속성들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다섯 속성은 햇빛의 과장과 같다. 권력의 속성의 역할은 대등할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더라도 각자는 그 고유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여건에 따라서 빛의 과장과 같이 작용우선 순위에 차이가 있다. 예로서 권력간에 욕구가 충족될 경우 결합 속성이 우선되며, 경쟁적 관계일 경우 창조적 속성이 우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권력의 속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원 하고 그 역할은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권력의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 예로서 권력의 창조속성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도모한다. 이에 비해서 권력의 보존속성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권력의 창조속성과 보존속성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다.

권력의 보존속성에 의한 사회적 분화 또는 다양화는 결합속성을 통한 권력결합을 유발하고, 이러한 권력결합은 다시 권력의 보존속성을 지원한다. 즉 권력의 보존속성은 결합속성을 유발하고, 권력결합은 권력의 정체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권력의 결합속성과 권력의 보존속성은 협력적 관계에 있다.

권력의 결합속성에 의한 권력의 결합은 사회의 수평적 질서를 창출한다. 이에 비하여 권력의 지배 및 귀속속성은 사회의 수직적 질서를 형성한다. 사회의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는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결합 및 지배, 귀속 속성도 경쟁관계에 있다.

권력의 다섯 속성들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들이 각 권력주체나 권력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들은 권력이나 권력주체들간에 경쟁과 협력의 동적 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생존을 위한 권력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의 동적 프로세스를 Concordance Process라고 한다(이경환, 2001).

Concordance Process는 주어진 사회나 조직의 긍정적인 생존질서를 창출한다. 예로서 권력의 다섯 속성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섯 경제주체들 즉, 정부, 기업, 소비자, 투자자 및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에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러한 권력속성들은 경제주체들간에 경쟁과 협력의 동적 프로세스를 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경제활동을 유발하게 한다. 권력의 다섯 속성이 기업활동에 능률적으로 작용할 경우 기업구성원들 간에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하며, 이러한 질서는 기업의 경쟁우위에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다섯 속성은 권력의 생존을 위한 본원적 전략일 뿐만 아니라 권력간에 Concordance Process를 야기하여 긍정적인 질서를 형성하게 한다.

2. 권력효과와 권력의 역할변이

사회는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으로 구성된 권력공간이라는 것을 지난 5월호에서 논의하였다. 사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권력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활동

주체들에 의한 의도적 또는 목적지향적 활동의 산출물이므로, 모든 권력들은 권력주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권력의 목적이나 의도가 주어진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익이나 순기능적 생존질서에 기여할 경우, 이러한 권력은 긍정적인 권력이다. 그러나, 권력의 목적이나 의도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여하여 제로섬의 게임을 유발하거나, 순기능적 생존질서에 저해할 경우 이러한 권력은 부정적인 권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은 그 자체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긍정적인 권력과 부정적인 권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로서 한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에 관련되는 여러 제도들은 경제생활에서 사용자와 고용자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작업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권력이다. 이에 비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의 주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실질적으로는 북한 권력핵심부의 이해와 정권의 유지에 기여하나, 북한의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상은 역기능적인 권력이다.

권력은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에는 흔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기능적 권력이라도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역기능적 권력을 순기능적 권력으로의 유도를 위해서는 순기능적 요소를 살리고, 권력의 역기능적 요소와 새로운 권력과의 결합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내면적으로는 권력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순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권력이 강할 경우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반대의 권력(counter sub-power)을 형성하며 다른 권력과 권력결합을 통해서 부정적인 권력을 지배한다. 따라서 획일화

보다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부정적인 권력의 지배기회를 줄일 수 있다.

긍정적인 권력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권력창출자의 의도나 목적뿐만 아니라, 권력창출 프로세스에도 크게 의존한다. 예로서 도덕, 윤리, 전통 및 문화와 같은 비가시적 권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 관계나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계와 같은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자생적 산출물이다. 이러한 자생적 산출물인 비 가시적 권력은 대부분 긍정적인 권력이다. 제도, 법률 및 규칙과 같은 가시적 권력은 흔히 의도적으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 된다. 이러한 가시적 권력은 권력설계자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된다. 앞에서 우리는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주체뿐 만 아니라 권력객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논의 하였다. 그러므로 권력프로세스는 긍정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권력주체가 선한 의도나 목적으로 권력프로세스에 의해서 권력을 창출하거나 이에 근거해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긍정적인 권력은 순기능적인 사회질서 창출에 기여하지만, 부정적인 권력은 역기능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행사의 결과는 권력 그 자체의 특성에도 관계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행사자, 즉 권력 주체의 권력행사 의도나 목적에 크게 좌우된다. 예로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함으로서 기업발전과 함께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운영자들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국회에 주어진 법률제정권과 정부에 대한 감사권한은 국민의 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당리당약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될 경우 이는 국가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존질서창출을 통해서 국가나 주어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권력창출과 함께 권력행사자의 의도나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권력작용에서 긍정적인 권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여 순기능적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도 한다. 또한 부정적인 권력은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여 역기능적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경우도 있으며, 긍정적 권력에 영향을 미치어 긍정적 권력의 작용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력현상을 권력의 역할변이(functional mutation of power)라고 한다. 예로서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인상 압력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기술의 혁신을 창출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우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기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은 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은 인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주택공급 가격의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권력의 역할변이는 권력주체로서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고 있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창출된 권력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한 권력행사는 권력의 역할변이를 야기하게 한다. 권력우위(power advantage)는 권력작용에서 권력의 순기능적 역할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권력도 권력의 역할변이로 인하여 권력우위를 누릴 수 있다.

3. Concordance Process와 자생적 생존 능력

앞에서 우리는 권력간의 경쟁과 협력의 Concordance Process는 권력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유발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권력의 다섯 속성은 인간의 내면에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형태로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인간의 내면의 요구나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배한다. 따라서 권력의 속성은 권력주체의 욕구, 가치, 태도 및 생존본능과 같은 내적 동학(internal dynamic)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시적, 비가시적, 경제적 권력과 같은 사회적 동학이 야기된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내적 동학이나 사회적 동학이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 중 하나 이상에 지배될 때, 이들은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이경환, 2001).

- 권력의 순환이 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심리와 같은 파행적 동학에 의존하거나
- 권력주체들의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거나
- 권력주체의 욕구가 다르면서 권력의 크기가 대등하거나
- 권력의 주체적 변환 에너지가 역기능적 권력에 의해서 무효화된 경우(예로서 권력의 핵과 권력의 무게중심이 다를 경우 권력핵과 권력의 무게중심은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 경우 권력의 주체적 변환 에너지는 소멸할 수 있다).

권력이 이러한 네 가지의 비합리적 조건 중 어느 한가지 이상에 지배될 경우 이는 Concordance Process의 유발을 저해하고 조직이나 사회에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예로서 나치 히틀러의 선

동정치는 독일 시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독일국민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권력의 다섯 가지 속성이 능률적으로 작용 되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독일국민은 귀속속성에 따라 나치당에 귀속되어 히틀러의 나치즘이 독일의 지배를 가능케 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의 투표 성향은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연이나 학연과 같은 개인적 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투표성향은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보다 자신의 이기적 감정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표성향은 정치주체들간의 Concordance Process를 저해시키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장애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의 투자의욕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서 무산될 경우 이는 경제주체들간의 Concordance Process를 저해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민간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과도하다고 믿고 있으나 정부의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제 성장동력은 경제주체들 간의 Concordance Process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경제주체들 간의 Concordance Process 정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경쟁과 협력의 동적 프로세스인 Concordance Process는 조직이나 사회공동체나 자연의 생태계로 하여금 자생적 생존능력을 재고한다. 예로서 다양한 개체로 구성된 자연의 생태계는 자생적 생존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식물들은 우기에 많은 물을 자신의 체내에 저장하였다가 갈수기에 그 물을 밖으로 내어 놓음으로써 다른 식물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한다. 어떤 식물들은 습지를

좋아하고, 어떤 식물들은 건조한 곳을 좋아한다. 또한 어떤 식물들은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들은 음지를 선호한다. 그러나 각 식물들 간에는 생존영역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경쟁과 협력 즉, Concordance Process를 통해서 그들의 자생적인 생존능력을 높이고 있다. 다양한 개체로 구성된 사회공동체에서 Concordance Process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공동체는 자연의 생태계와 같이 자생적 생존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Concordance Process는 국가사회나 조직의 자생적 생존과 발전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나 조직의 자생적 생존과 발전의 요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의 속성작용을 저해하는 권력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하는 자가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권력주체간에 긍정적인 Concordance Process를 유발 하는데 있다.

자가정화시스템의 초점은 권력의 비합리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조직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시적, 비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의 기강 확립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긍정적인 Concordance Process는 국가구성원들에 의한 긍정적인 리더십과 긍정적인 권력에 크게 의존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의 긍정적인 효과는 권력주체의 선한 의도와 함께 긍정적인 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조직이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능력이므로 리더십은 권력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리더십은 권력 프로세스를 통해서 창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프로세스는 권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의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Win-win 프로

세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 프로세스에 근거한 Concordance Process는 긍정적인 경쟁과 협력의 동적 프로세스를 야기한다.

권력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주체의 권력프로세스에 작용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한다. Concordance process는 개인, 기업, 조직, 정부와 같은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적용할 수가 있다.

REFERENCES

- 이경환(2001), 국가생존전략, 도서출판 두남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 Inc.
 Mitzman Arthar (1994), "Historical Identity and Identity of the Historian", in Harke A. Bosma, Tobi L. G. Graafsma, Harold D. Grotevant, David J. de Levita (eds), Identity and Development, An interdisciplinary. 